

산본공동육아조합 감나무어린이집 대기자 설명회 자료

2018.2.20



공동육아란 무엇일까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아마도...?



아이가 행복한 것?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아이와 부모(나 자신)가 함께 크는 것 ~ !!!



아이와 부모(나 자신), 그리고 지역 사회
가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 !

공동육아란 무엇일까요?

전문가 말씀 (참고)

공동육아의 의미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란 뜻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내 아이’를 말하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줄 때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들’이다.

여기서 ‘함께’란 나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는 뜻이다.

즉 육아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육아를 통한 어른들의 생활변화, 그리고 크게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공동육아는 조합과 교사회가 대안적인 교육환경과 내용을 만들어간다. 교육적인 환경을 만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가치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력을 담보로 한다.

공동육아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개선해 가고자 하는 교육운동이다. 운동은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어린이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는 물론 부모들의 삶도 스스로 변화하기를 요구한다.

공동육아운동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말순 (코벌소, 현장교육지원전문가)
- 2013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신입부모교육 강의 중)

공동육아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공동육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정한 교육의 틀이 생겼습니다.

1. 자연친화교육(생태교육)

- 자연은 우리가 함께 사는 세계의 일부 생명과 순환의 섭리 이해를 통해 배려, 돌봄, 존중의 미덕을 배웁니다(나들이, 텃밭)

<공동육아 역사>

어린이 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감나무 어린이집 태어남 2001년
그리고 지금! 2018년

유구한 역사!



수리산 나들이-도
룡농알 관찰



텃밭-수확 하는
날~

공동육아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공동육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정한 교육의 틀이 생겼습니다.

2. 생활문화교육

- 세시와 절기에 따른 활동, 생활 놀이
기본 생활 문화와 민속적 능력을 습득
(자발적 놀이, 전래놀이, 세시절기교육,
옛이야기, 기본생활)

<공동육아 역사>

어린이 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감나무 어린이집 태어남 2001년

그리고 지금! 2018년

유구한 역사!



오후활동- 진달래
화전만들기



단오제 전래놀이-
손치기발치기

공동육아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공동육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정한 교육의 틀이 생겼습니다.

3. 관계 교육

- 아이들 또래간 친밀한 관계
- 아이와 교사 간 평등한 상호관계
- 교사와 부모 간 긴밀한 협력관계
-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음
- 별명, 반말문화, 모둠 활동, 회의 문화, 날적이, 마실 문화, 들살이 등

<공동육아 역사>

어린이 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감나무 어린이집 태어남 2001년

그리고 지금! 2018년

유구한 역사!



5,6,7세 터살이



5월 전체 들살이

공동육아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공동육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정한 교육의 틀이 생겼습니다.

4. 통합 교육

- 다름에 대한 인정과 어울리기(함께 살기)
연령 통합, 장애아 통합, 계층 및 문화 통합, 양성성 교육
가정과 터전의 연계가 중요!

<공동육아 역사>

어린이 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감나무 어린이집 태어남 2001년

그리고 지금! 2018년

유구한 역사!



연령통합 나들이-뿌리
방♥들꽃방



통합 안전교육-누
나가 챙겨줄게

공동육아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공동육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일정한 교육의 틀이 생겼습니다.

5. 체험 교육

- 오감을 통한 체험, 탐구, 이해 및 표현
체험을 표현하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다양한 자발적 놀이를 찾아내기

<공동육아 역사>

어린이 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감나무 어린이집 태어남 2001년
그리고 지금! 2018년

유구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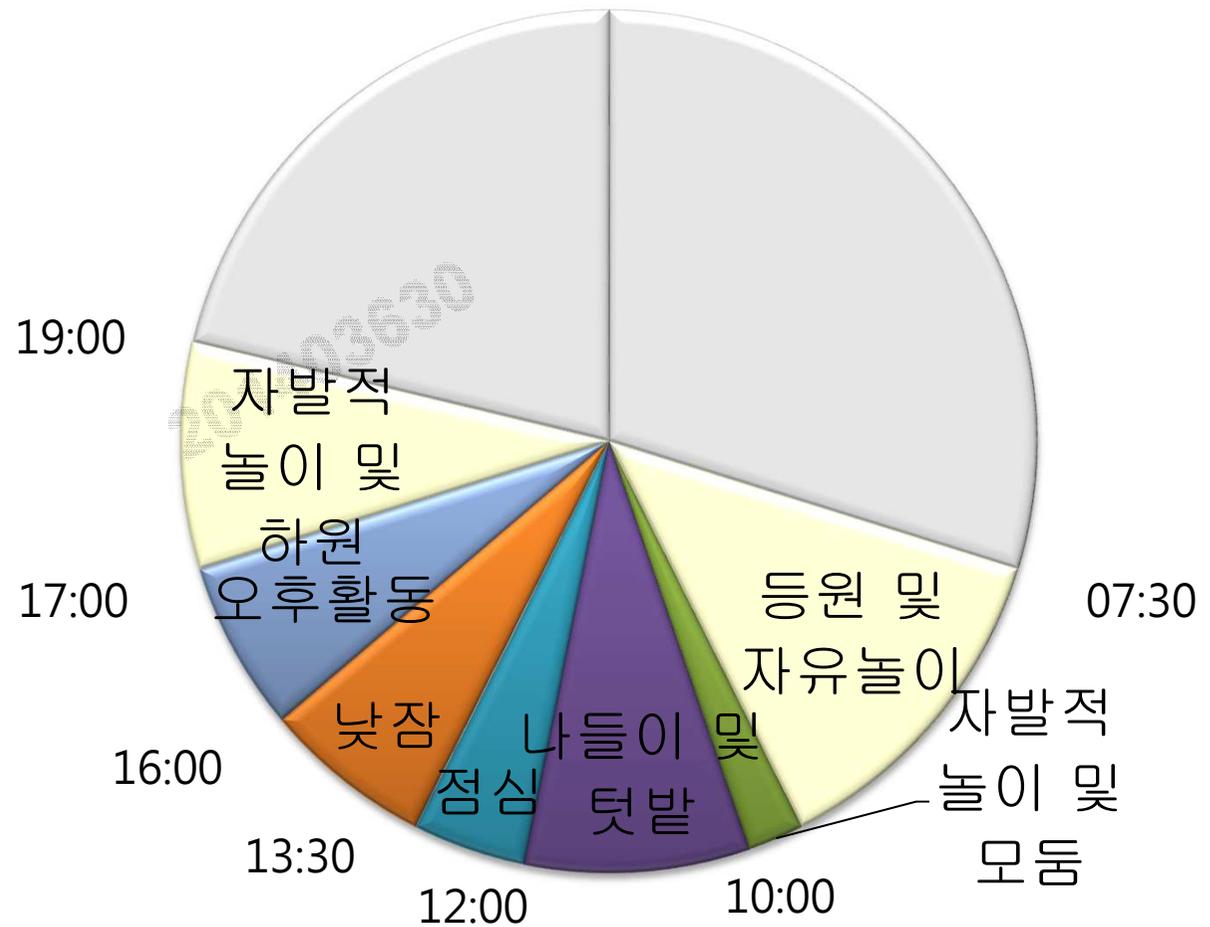
흥미모듬 - 요리활동



자발적 놀이-식당놀이

공동육아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감나무에서 보내는 아이의 하루 흐름



<공동육아 역사>

어린이 걱정모임 해송보육학교 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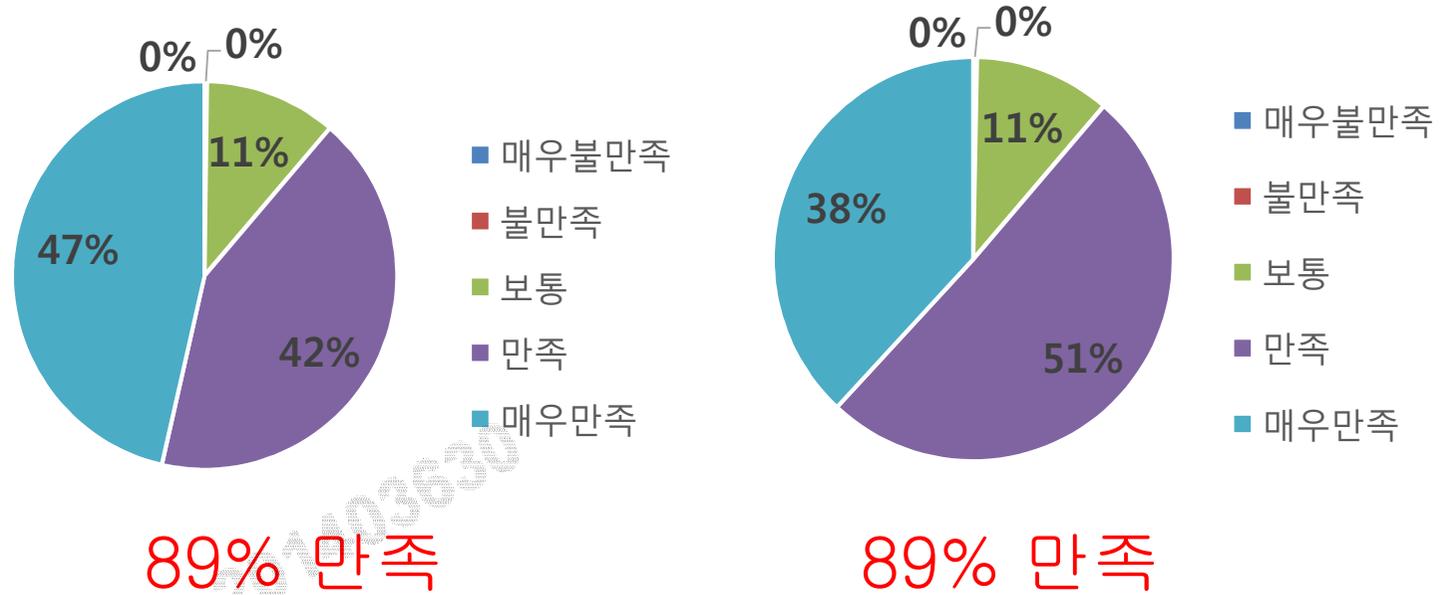
감나무 어린이집 태어남 2001년

그리고 지금!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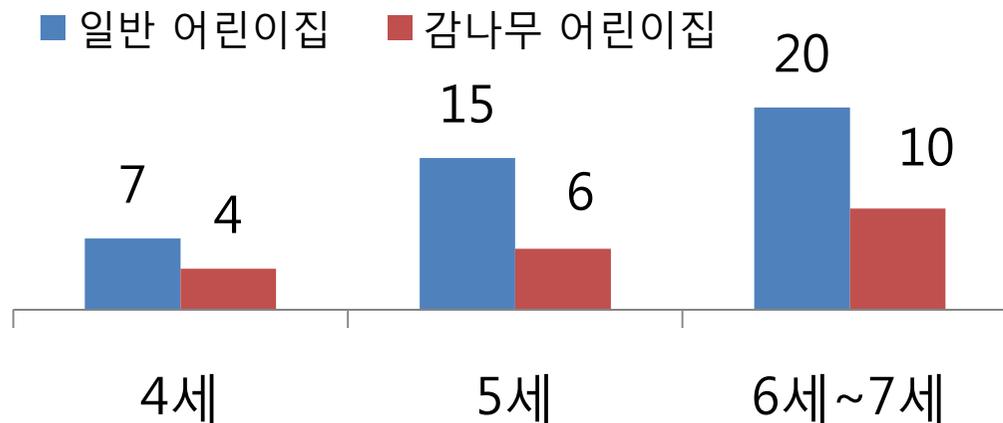
유구한 역사!

공동육아, 멋진 교사들이 있어요

<보교육 만족도> <교사 & 부모 관계 만족도>



▶ 교사 1인당 아이 수 비교



<2016년 11월 감나무 설문 조사>

1. 대상 : 2016년 등원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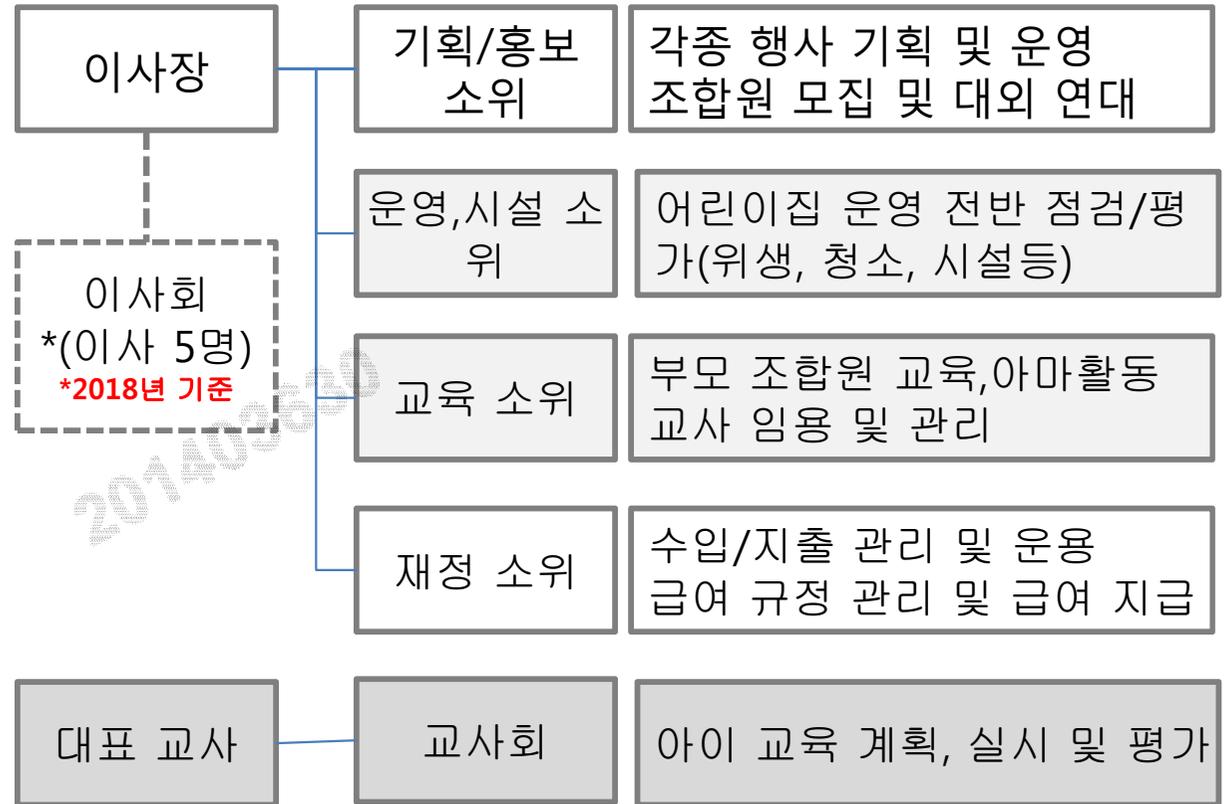
2. 항목

- 생활 교육 및 지도
- 교사와 부모 간의 관계
- 나들이 평가
- 교육활동 평가

감나무 운영 구조

조합원 = 부모 조합원 + 교사 조합원

- ★ 교사 조합원 역할 - 아이들 교육
- ★ 부모 조합원 역할 - 나머지 몽땅 !!



- 이사장과 이사는 매년 새로 선출됨 (2018년 소위조직개편)
- 모든 부모가 각 소위에 소속되어 활동 함

감나무 부모 참여

공동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 to the 여'

얼마나 많이 할까요?

구분	활동명	시간	주기	연간 횟수
운영	총회	6시간	1회/반기	2회
	방모임	3시간	1회/월	12회
	소위 모임	3시간	1회/격월	3~6회
	터전 청소	2시간	1회/월	12회
	대청소	4시간	1회/반기	2회
	텃밭 관리	2시간	1회/격월	6회
	김장	1박 2일	1회/년	1회
교육	조합원 교육	2시간	1회/반기	2회
	일일교사 지원	8시간	3회/년	3회
어울림	전체 들살이	1박 2일	1회/반기	2회
	방 들살이	1박 2일	1회/년	1회
	아빠와의 여행	18시간	1회/반기	2회
	엄마들의 나들이	1박 2일	1회/년	1회
행사	졸업식	4시간	1회/년	1회
	해넘이	4시간	1회/년	1회
	개원잔치	4시간	1회/년	1회

감나무 재정 운영

1. 감나무 등원하는 데에 얼마나 드나요?

- 가입비 : 60만원
- 출자금 : 1,100만원 (1자녀)
+ 700만원 (2자녀)
+ 100만원 (3자녀)

*출자금은 졸업/탈퇴 시 **환불** (단, 발전기금 80만원 공제)

*출자금 용도 : 터전(어린이 집) 전세금

- 조합비 : 약 30~35만원/월
+ 추가 조합비 약 5~10만원/월

*어린이집 운영 비용

* 아이 연령, 자녀 수 별 차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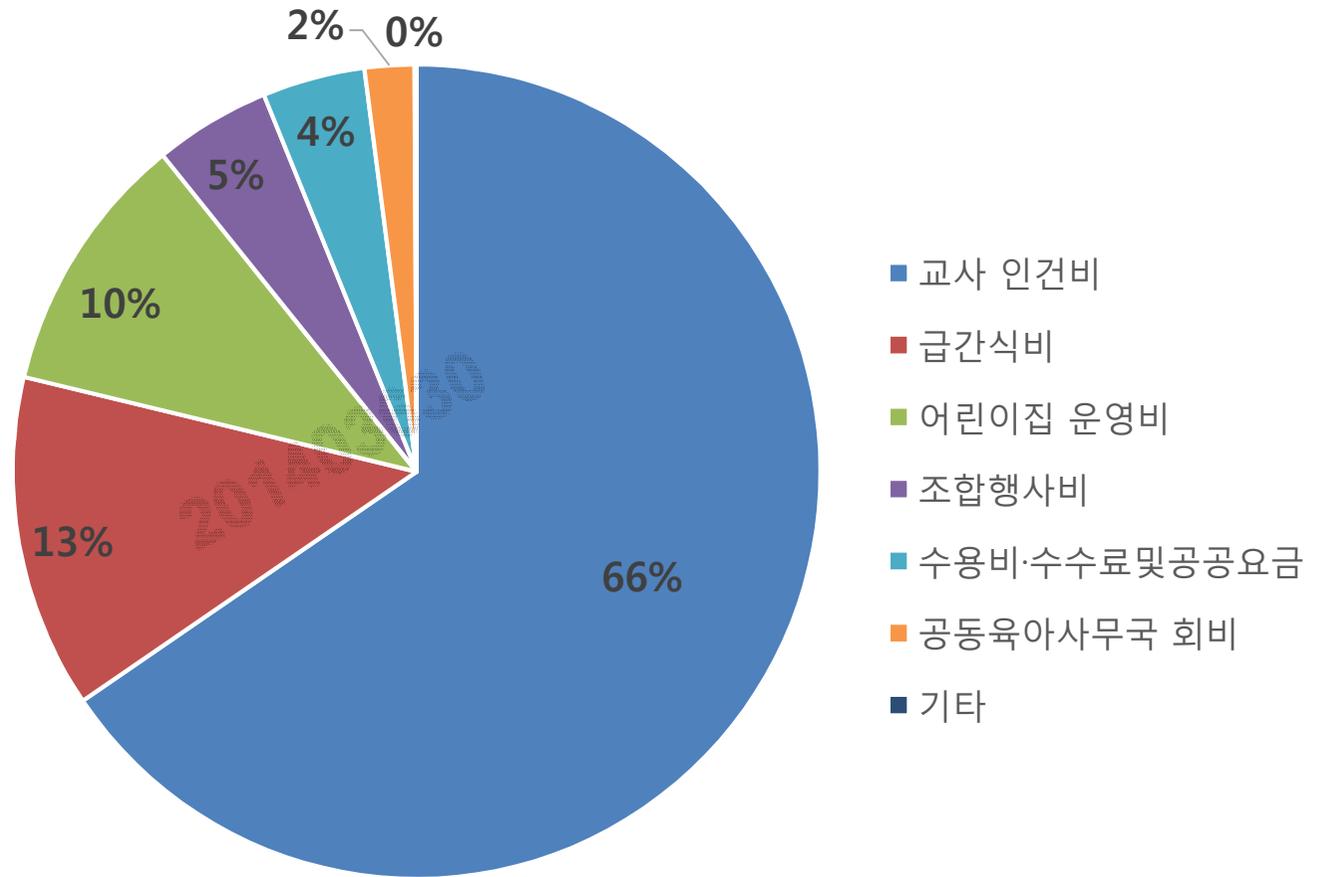
* 추가 조합비 : 부족한 비용에 대한 1/n 추가 부담

*이사직 미수행시 기부금 60만원 (6개월 이상 등원 가구)

감나무는 전세살이를 하느라 출자금
이 높은 편이에요.

감나무 재정 운영

2. 감나무 비용(정부지원금+조합비)은 이렇게 쓰여요



감나무의 좋은 점



- ★ 군포지역 유일의 공동육아어린이집
- ★ 터전 가까이 수리산이 위치한 축복받은 환경
 - 매일매일 신나는 자연 속 나들이
- ★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사용
 - 아이쿱생협 식자재 주문
- ★ 아이를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 ★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 이윤 추구 X
- ★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

공동육아, 이런 것이 궁금하다



공동육아는 놀기만 한다는데 문자, 셈 등 인지교육은 정말 안 하나요?

→ 아닙니다. 인지교육 합니다.
다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놀이 속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문자에 익숙해 지도록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고,
시장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숫자를 익힙니다.

나들이, 텃밭 활동으로 탐구력을,
아이 말에 귀 기울여 줌으로 표현력을 키웁니다.

7세 아이들은 보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철학은 무엇이고, 철학이 같아야만 조합에 가 입이 되나요?

→ 공동육아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와 우리 자신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원칙(생태, 관계, 통합 지향 등)은
있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공동육아의 여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기를 바랍니다.

공동육아 졸업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적응이 어렵지 않나요?

→ 사실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만큼 문자/숫자에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아이들은
친구/교사 관계가 잘 형성된
바람직한 골목대장(?)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육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나들이 : 매일 2시간씩 산이나 들, 공원으로 가는 것.

긴 나들이 : 하루 종일 나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멀리 나들이를 갈 때는 ‘먼 나들이’

들살이 : 숙박 나들이.

터전 : 어린이집(공간)을 부르는 이름

방 : 보통의 어린이집에서 쓰는 ‘반’대신 ‘방’을 사용

날적이 : 아이들의 하루 생활을 교사와 부모가 글로 적어 주고받는 수첩

모듬 :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활동.

주로 나들이 장소나 놀이를 정함

방모임 : 같은 방 아이의 부모들과 담당교사가 저녁에 하는 모듬

마실 : 이웃집에 놀러 가는 일.

아마 : 아빠와 엄마의 준말

정말 사교육을 하지 않나요?

→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자연과 어울려 뛰어 논 우리 아이들은
저녁에는 쉬어야 하니까요. ^_^

물론, 다른 아이들과 경쟁에 뒤쳐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럴겠지요.

아이들에게 단 한번뿐인 행복한 유아시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은 '필요에 의해 스스로
배울 수 있음'을 믿기에, 사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필요'를 느낄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반말이나 별명은 왜 사용하나요?

버릇 없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하죠?

→ 반말(평어) 사용은 아이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존댓말이 주는 어른의 권위적인 모습과 사용상의 어려움이라는 장벽을 없애줍니다.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합 교육 및 관계 교육을 통해,
어른과 아이, 형과 아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반말만 하던 아이가 친척 어른들 앞에선
존댓말을 해서 부모들이 급! 당황하기도 합니다.

별명을 사용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꼭 다시
만나길 바라요~